『기독교사회윤리』 제57집
(2023) 73~98

디지털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최경석(남서울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

I. **들어가는 말**

II.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세상**

III. **그리스도인의 자유**
1. 윤리적 판단기준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
2. 루터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IV. **디지털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3.57.03

* 이 논문은 2023년 11월 25일 숭실대학교 김덕윤예배실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사회윤리, 한국여성신학회, 숭실대학교 HK+사업단,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이 공동개최한 2023년 공동학술대회에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제목의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www.kci.go.kr

• ABSTRACT •

Freedom of a Christian in a Digital Age

Associate Prof., Choi, Kyung Suk (Namseoul University)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rough algorithms and big data has changed the world.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that people have never experienced has made it difficult to predict the future. The limits of freedom are also vague. Digital technologies can expand freedom, but they can also constrain it. From a Christian ethical standpoint, freedom must be fulfilled within the responsibility between God and humans. Ethical reflection is required for Christians living in the digital world to view freedom responsibly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However, this does not mean denying digital technology. Rather, we must ask ourselves whether a sustainable life is possible for the next generation. The testimony of the Bible and Luther's theology are to understand freedom as a responsible freedom to love one's neighbor. This article explores how the responsible freedom of charity can be applied to our times, represented by the digital wor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rough algorithms and big data. Particularly important is Christian freedom as a responsible, free human being who cultivates the digital age as an extension of the world God created while reinterpreting the Ten Commandments of the Bible to adapt them to our reality.

Key words: Algorithms, Big Data, Digital World, Ten Commandments, Freedom of a Christian

www.kci.go.kr

I. 들어가는 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일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손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터치 한 번으로 세상의 많은 정보들이 수집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관계망을 형성시킬 수 있다. 이 기술의 언어는 0과 1이다. 단순한 이 언어는 인간의 언어들을 대신하고, 사진과 영상들을 송출시켜 세상의 문화를 하나로 연결한다. 경제적으로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교환형태를 창출했으며 이를 통해서 금융시장의 발달도 촉진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과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형태가 등장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형태의 정치참여를 가능케 만들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와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디지털 기술은 지금까지의 인간의 일상과는 전혀 다른 일상을 만들었다.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디지털 기술의 잠재성을 인간 스스로도 측정하기 어렵다. 삶을 송두리째 변경시킬 디지털 기술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거의 불가능하게 한다. 자유의 경계도 모호하다. 디지털 기술은 자유를 확장시키기도 하지만, 억제할 수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양한 온라인 사회에 참여할 자유가 보장된다. 동시에 익명이나 아바타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활용된다. 하지만 수많은 디지털 정보와 다른 사람들의 정보에 의해 자유가 억압되기도 한다. 특히 독재국가들에서 정부는 개인의 정보를 수집해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다.

기독교윤리적 입장에서 자유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책임 속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디지털 세상에서 이런 책임적 자유에 대한 질문은 모호한 상태다.[1] 기독교윤리를 떠나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디지털

1)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규범을 모색하려는 이창호는 기술의 발달로 기술 자체가 유사 종교 또는 신격화되는 것을 경계하며 기술에 절대성을 부여하는 것을 주장하는 엘륄의 기술 이해에 대해 신학적으로 비판한다. 이창호는 기술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

www.kci.go.kr

세상에서 벌어지는 자유에 대해 책임을 적용한 윤리적 물음은 그래서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디지털 기술로 나타난 모든 세상의 변화에 대하여 기독교의 시각에서 책임적으로 바라보는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 기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다음 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삶이 형성되도록 입장의 정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오늘날 디지털 사회의 현실이 분석되어야 한다.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의 세상에 대한 서술은 제II장에서 이루어진다. 디지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유를 누려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제III장에서 성서와 종교개혁 전통의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의 입장을 통해서 기술될 것이다. 성서와 루터를 통해 밝혀질 그리스도인의 책임적 자유를 고려하면서 제IV장에서의 주제는 십계명의 준칙의 재조명이다. 이 주제는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위한 것이다.

II.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세상

우리가 쓰는 알고리즘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말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음성, 텍스트 또는 영상 등과 같은 정보들을 기술의 언어인 0과

도의 새창조의 빛 안에서 규범적 검토와 평가가 필요한 것(몰트만(J. Moltmann)의 견해), 인간은 기술에 대해서 예언자적 관점으로 생명을 풍성히 하도록 책임을 가지는 것(슈바이크(W. Schweiker), 그리고 기술이 유토피아의 구현에 이바지한다면, 이를 평화와 사랑의 극대화를 위해서 적극 수용하는 것(구티에레즈(G. Gutiérrez)으로 기술을 유형화한다. 이를 위해서 이창호,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규범 모색을 위한 철학적, 사회학적, 신학적 관점에서의 융합적 연구: 자크 엘륄(Jacques Ellul)의 기술 이해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한 적용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45 (2018), 331-379; 이 논문에서는 이창호, 『과학기술과 인간에 관한 기독교적 성찰』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23)을 참조.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이창호, 『과학기술과 인간에 관한 기독교적 성찰』, 136-149를 참조하라.

www.kci.go.kr

1로 단순 환원하여 상이한 양상으로 재현하는 컴퓨터의 논리적 변용성(logical malleability)에 기초한다. 쉽게 말하면, 다양한 정보들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규칙 또는 "컴퓨터가 수행할 일을 순서대로 알려주는 명령어의 집합"[2]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정보사용자들의 일정한 형태가 정리될 수 있다. 총체적인 맥락은 건너뛰고 단순한 정보들이 복잡하게 처리되며, 빈번하게 반복되는 것을 통계적으로 최적화하여 다음 단계가 예측 가능해진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한 정보들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알고리즘은 오늘날 사람들의 판단기준과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 막강한 능력을 자랑한다. 인간의 개입이 없어도 자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일처리에 있어서 합리적이며 인간과 유사하다.

이런 해결이 가능한 것은 결과의 값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알고리즘 기술은 근거 또는 최초의 입력값과 연결되어 결과를 도출하는, 즉 기호와 논리에 따라서 결과를 도출하는 기호주의적 접근법(symbolism)에서 인간의 뇌를 모방하는 것에서 착안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연결하는 연결주의적 접근법(connectionism)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뇌의 신경 구조(neural network)를 기초로 한, 딥러닝(deep learning)은 연결주의적 접근법으로 결과의 값을 도출할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3] 연결주의적 접근법의 알고리즘의 이러한 특성이 사람들의 판단기준과 의사결정에 적용될 경우, 그 행위의 주체가 알고리즘인지 인간인지 불분명하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가 난해하다.

이런 배경에서 인간의 뇌 과학을 기반으로 발전된 지능 기술혁신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배우는 인공지능이 등장했다. 아울러 무선 통신을

2) Pedro Domingos, ***The Master Algorithms,*** 강형진 옮김, 『마스터알고리즘』 (서울: 비즈니스북스, 2016), 29.

3) 이상용,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지도-원리, 구조, 내용," 「경제규제와 법」 13/2(2020), 135.

www.kci.go.kr

통해서 각종 사물을 연결시키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의 발달은 사람, 사물, 그리고 정보를 하나로 연결시킨다. 이를 통해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쌓인다. 즉 빅데이터(big data)가 생성된다.[4] 빅데이터는 인간의 생활 사회와 생태에서 만들어진 정보들의 집합이지만, 단순 정보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개인의 삶을 넘어 생활 사회에서 현실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다. 빅데이터는 인간의 단순한 보조품을 넘어 필수품이 되어버린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등과 같은 전자기기의 활용을 통해서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활용되는 카드사용, 그리고 이 외에 인간의 다양한 생활양식을 통해서 형성된다.

빅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크기(Volume), 형태의 다양성(Variety), 그리고 데이터 생성 속도(Velocity)인 3V로 설명된다. 여기에 최근에는 정확성(Veracity)과 가치(Value)라는 두 가지 특성이 첨가되었다.[5] 빅데이터 자체와 빅데이터 과학기술은 그 의미상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를 단순한 대용량의 정보의 집합체로 정의하는 것은 협소한 의미다. 오히려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까지 포함되어야 한다.[6] 데이터가 많이 쌓인다 해도 이를 분석하는 과학기술 없이는 빅데이터가 될 수 없으며, 그 반대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빅데이터가 없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7]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과학기술의 발전 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그동안 사회 곳곳에 쌓아 놓기만 했던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통해서

4) 이중원, "빅데이터가 던지는 도전적인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고찰,"「도시인문학연구」 9/1(2017), 169.
5) 위의 논문, 170.
6) 김항인,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정보 윤리 의식,"「윤리연구」 123(2018), 139.
7) 장병열, 김영돈, "빅데이터 기반 융합 서비스 창출 주요 정책 및 시사점,"「과학기술정책」 192(2013), 5-6.

www.kci.go.kr

인간의 사고능력을 컴퓨터로 구현시킨 인공지능까지 이르렀다. 인공지능은 알고리즘 자체의 발전을 넘어서 획기적인 빅데이터 처리능력의 향상까지 가능케 만들었다. 인공지능은 클라우드(Cloud)와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의 활성화로 이어져 데이터 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인식하고, 맥락을 이해하고, 언어를 번역하고, 패턴을 인식하고, 그리고 감정까지도 이해한다.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과 유사하거나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권리가 침해된다.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서 개인 또는 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보 수집과 활용에 있어서 일부 포털 기업의 독점화가 일어나고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왜곡과 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결과의 값과 빅데이터 분석으로 개성이 상실될 수 있다. 이런 상실의 시대에서 진정한 자유가 침해당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에 대한 윤리적이고 법적 문제를 논의하고 입법화하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또한 우려되는 일들은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전한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계층, 즉 이를 독점하고 최초의 입력값을 삽입하거나 조작할 계층의 출현은 그렇지 못하는 낙오자들과의 사회적 격차를 만들 것이다.[8]

알고리즘 개발자들의 선택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윤리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라서 개발자들의 윤리적 판단을 그대로 수행한다. 개인들의 온라인 활동을 정보로 삼아서, 또는 연령, 성별, 그리고 지역별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의 의도와는

8) 이에 대한 견해로 김동환,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기독교사회윤리」 44(2019), 55-76.를 참조하라. 김동환은 인공지능 로봇의 등장으로 인간의 노동시장이 잠식되고 인공지능 로봇들이 지속적으로 투입됨으로써 노동할 공간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 노동소외 현상으로 낙오자들이 나올 것이며 이들을 "테크놀로지의 프레카리아트(technological precariat)"로 규정한다.

www.kci.go.kr

무관하게 인공지능은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딥러닝을 기반한 인공지능의 기술에서 타인에게 또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정보제공의 결과를 도출시킨 개발자들의 윤리적 또는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사정이다. 우리 사회는 자유에 대한 모종의 제한을 인정하지만,[9] 알고리즘 개발자들의 선택적 자유의 제한은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디지털 세상에서 침해되는 개인의 자유, 정보의 오염과 왜곡으로부터 해방될 자유가 절실해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에 대한 철학적 또는 사회과학적 개념이 필요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학적 의미에서 자유의 개념도 필요하다. 자유에 대한 자유를 윤리적 판단기준으로 설정하는 연구는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에서 많이 진행되었다.[10] 이런 디지털 혁신의 시대에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고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고려의 대상이다.

---

9) 자유를 윤리적 판단의 규범으로 중시하는 자유주의에서도 조차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자유지상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도 이를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 한다. 법치주의와 개인의 책임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개인들은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다.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도 밀(J. S. Mill)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를 자유라 정의하며 자유를 제한한다. 자유의 제한에 대한 철학적 그리고 법적 근거를 위해서, 이상용,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지도-원리, 구조, 내용," 130-135을 참조하라.

10) 큰 틀에서 자유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먼저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법치와 자기책임의 원칙을 강조하며 국가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켜 국민의 자유를 위해 작은 정부의 구성을 요구한다. 공리주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자유의 행위를 극대화시켜 공리를 추구한다. 칸트(I. Kant)가 말하는 자유는 조금 복잡하지만, 자유를 정언명령을 통한 의무적 행위를 요구하는 자율로 이해한다. 공동체주의에서 공동체에 전해지는 좋은 삶을 저해하는 자유는 용납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Michael J. Sandel,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이창신 역, 『정의란 무엇인가?』(파주: 김영사, 2010)를 참조하라.

www.kci.go.kr

III. 그리스도인의 자유

1. 윤리적 판단기준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

자유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찾는 일은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되는 성서에서 그 기준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구약성서를 고려할 때, 과거의 전통, 보다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의 전통을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이다. 신약성서의 전통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성서적 전통에서 자유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윤리적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 셈이다. 이는 기독교윤리의 연구과제다. 특히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자유는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가 무엇인지 제시되어야 한다.

구약성서의 전통에서 자유는 히브리 공동체가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히브리 공동체는 해방된 자유인으로서 더 이상 압제자 파라오의 명령을 듣지도 실행하지도 않아도 된다. 다만 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조건이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도록 십계명이 히브리 공동체에게 주어졌다. 시나이 반도에서 하나님과 히브리 공동체 사이의 계약은 자유인들과의 계약으로서 자유에 관한 것이다. 십계명의 준행 속에서 히브리 공동체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책임 속에서 히브리 공동체의 삶의 방향성이 정해진 것이다.[11]

히브리 공동체가 얻은 새로운 자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책임 속에서 유지될 수 있다.[12] 이런 의미에서 구약성서의 전통에서 자유는

11) 이사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언약, 새롭게 읽는 십계명』 (서울: 신앙과지성사, 2023), 31-32.

12) 이런 해석으로 EKD, *Freiheit digital, Die Zehn Gebote in Zeiten des digitalen Wandels*

www.kci.go.kr

책임적 자유로 언급될 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신적인 규범이 십계명을 통해서 인간에게 전해졌다[13]면 십계명은 단순히 그 당시 히브리 공동체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 인류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편적이다.[14]

창조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 조건적 자유였다. 조건을 어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는 책임적 자유다. 경작하며 문화를 이룩하라는 명령도 정원관리사의 책임 속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자유다. 즉 하나님의 조건 또는 명령 속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적 자유다.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가질 수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인으로 부르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 안에서 삶을 유지한다.

십계명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면,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특히 제10계명은 이웃의 사물에 대한 책임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이웃사랑으로 확대된다. 십계명을 준행함으로써 얻은 자유는 이웃사랑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창조론의 관점에서 자유는 이웃사랑으로 귀결되어야 함이 명확히 제시된다. 피조물의 일부부인 인간도 자연을 이용할 자유를 얻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로서 위임이 자유로 이해될 수 있다.[15]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21), 234.

13) 고재식은 제임스 셀러스(James Sellers)를 인용하여 신적인 규범을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기독교윤리라고 정의한다. 고재식,『기독교윤리의 유형론적 연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35.

14) 구약성서 전통을 따르는 유대교는 토라(Torah)에서 613개의 율법 조항들을 산출한다. 십계명은 이른바 율법의 출입문이자 근본조항으로 이 글에서는 613개의 율법들보다는 십계명에서 자유의 개념이 논의될 것이다.

15) G. Brakelmann, *Zur Arbeit geboren? Beiträge zu einer christlichen Arbeitsethik*

www.kci.go.kr

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대한 책임감 속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성서의 전통에서 자유는 이웃을 향한 책임적 사랑으로 나아가게 한다.

신약성서 전통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갈 5: 1)라고 천명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인간은 자유롭다. 자유는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으로 이해된다.(갈 5: 13-14) 이런 자유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을 경험할 수 있다.(고후 5: 17) 새로운 피조물로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와 더불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받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종교개혁 전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자유를 계승한다. 개신교는 교회의 권위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리스도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현현이자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빛 안에서 인간에게 자유함을 주신다. 그 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킨다. 곧 자유함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결과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오용하고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유 안에서 인간의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전개된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해방과 자유의 현현인 셈이다.

신약성서의 전통에서도 자유는 이웃을 섬기는 책임적 사랑으로 나아가게 한다. 바울신학에 근거할 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웃을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론에 근거할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Bochum: SWI Verlag, 1988), 10.

www.kci.go.kr

2. 루터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종교개혁 전통을 고려할 때, 마르틴 루터는 1520년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의 자유"[16]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명쾌히 설명한다. 종교개혁 전통의 이전에 자유의 개념을 위해서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Hipponensis)와 그를 이은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가 이해한 자유의 개념이 짧게 언급될 수 있다.[17]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자유를 선함과 하나님을 향한 노력으로 이해한다. 인간은 선을 행할 성향과 악을 선택할 성향,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 자유는 사랑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만날 때 실현될 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유를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켜 인간의 본성으로 이해한다. 이 자유는 인간의 이성과 조응한다.

종교개혁 전통에서 루터는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종이라는 상호모순적인 두 가지 명제들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설명한다. "그리스도인은 만물에 대한 자유로운 지배자이며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만물에 대해 봉사할 수 있는 종이며 모두에게 예속되어 있다."[18] 자유로운 인간에 대한 이런 모순성은 루터신학의 출발점인 칭의의 관점에서 이해된다. 누군가에 예속된 종이지만 동시에 자유인으로서 자유로움을 인정받은 인간은 내적인 자유와 외적인 자유를 가진다.[19]

---

16) Martin Luther, "Von der Freiheit eines Christenmenschen," ***Weimarer Ausgabe 7*** (이하 ***Weimarer Ausgabe***는 ***WA***로 약칭), 루터의 이 글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https://archive.org/details/werkekritischege07luthuoft, 2023년 10월 13일 접속.

17) 이 부분은 한스 울리리(Hans G. Ulric)의 견해에 기대어 언급될 것이다. Hans G. Ulrich, "Freiheit," in: M. Honecker (Hg.), ***Evangelisches Soziallexikon*** (Suttgart: Kohlhammer, 2001), 506.

18) Martin Luther, "Von der Freiheit eines Christenmenschen," 21.

19) 루터는 "Von der Freiheit eines Christenmenschen(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세 번째 강령부터 열아홉 번째 강령의 첫 부분까지 내적인 인간, 즉 영적인 존재의 인간을 기술한다. 그 뒤부터 스물아홉 번째 강령까지 외적인 인간으로 육체적 존재로서 인간을

www.kci.go.kr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인정받은 인간은 이런 의미에서 "만물에 대한 자유로운 지배자"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살아갈 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타인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이런 의미에서 "만물에 대해 봉사할 수 있는 종"이다.[20]

루터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는 선하지 못하다.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행할지라도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겨야 인간은 선함을 희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만 칭의를 받고 그 결과를 통해서 인간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바울신학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인간의 죄로부터 해방은 루터에게 커다란 자유인 셈이다.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자력 구원으로부터 벗어날 때, 인간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와 상응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다.

인간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신부로 맞이할 때 주는 그분의 결혼 선물이다. 루터는 칭의를 마치 전적인 신랑의 사랑을 통해서 죄로 가득 찬 창녀를 신부로 맞이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인간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그리스도는 승리한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얻고 의로움을 받는다. 칭의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즐거운 경사(慶事)다.

묘사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내용에 충실한다면, 내적인 자유와 외적인 자유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두 가지는 상호연관성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으로 H. Bedford-Strohm, Sozialwissenschaftlichen Institut der EKD Hg., *Freiheit Reformation Heute* (Hannover: Agentur-Durkerei Verlag, 2016) 10.

20) Hans G. Ulrich, "Freiheit," 506-507.

www.kci.go.kr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인간이다. 그는 죄가 없으며, 그의 의로움(frumkeyt)은 정복당하지 않고, 영원하고 그리고 전능하다. 그리스도는 신부의 반지, 즉 믿음을 통해서 믿는 영혼들의 죄를 마치 자신이 한 것같이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은 그리스도 안에서 삼켜지고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정복당하지 않는 의로움은 모든 죄악들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혼은 신부의 결혼 선물, 즉 믿음을 통해서 모든 죄로부터 면제되고 자유롭게 되고 신랑인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로움을 선물로 받는다(begabt). 부유하고 고귀하고 의로운 신랑 그리스도가 가난하고 멸시받고 사악한 창녀와 결혼하여 그녀를 모든 악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모든 선함으로 치장하는 데, 이 어찌 즐거운 경사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죄악이 영혼을 정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죄악은 이제 그리스도 위에 놓여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삼켜졌기 때문이다."[21]

인간이 자유를 얻는 것은 선한 행위의 공로나 업적을 통해서가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속"된 종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만물에 대한 지배자"인 자유인이다.[22] 자유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성취한 업적이 아니다. 그렇다고 루터가 인간의 선한 행위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한 행위를 믿음보다 우위에 놓는 것에 대해서 경계한다. 믿음을 통해 내적인 자유를 가진 자들은 나태함이나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한 행위를 당위적으로 생각하고 실행한다.

"말씀에 따라서 영혼도 그 말씀처럼 된다. 이는 마치 쇠가 불과 결합하여 불처럼 빨갛게 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에서 충만한

21) Martin Luther, "Von der Freiheit eines Christenmenschen," 25. 이 논문에 인용된 루터의 저작의 한국어 번역은 논자가 직접 번역한 것임을 밝힌다.

22) 위의 책, 21.

www.kci.go.kr

것을 본다. 그는 경건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 그가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기에 그는 모든 계명과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있다(empunden). 그가 해방되었다면, 그는 확실히 자유롭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며, 유일한 믿음이다. 이 믿음은 우리가 나태하거나 악을 행하도록 하지 않고 우리가 경건함과 축복을 영위하기 위한 그 어떤 행위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만들어 준다."[23]

즉 자유로움을 받는 것이 우선이고 선한 행위는 자유로움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자유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모든 행위 이전에 언제나 사람이 먼저 선하고 의로워야 하며 선행은 이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부터 뒤따라 나와야 한다."[24]

오늘날 자유의 개념은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개인의 재산, 생각, 권리, 그리고 신체 등을 보호하는 방향 속에서 자유의 개념이 표상된다. 이런 개인주의적 경향 속에서 루터가 제시한 두 번째 명제는 의미심장하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만물에 대해 봉사할 수 있는 종이며 모두에게 예속되어 있다." 이 자유의 개념을 고려할 때,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행동은 자신을 위한 것일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홀로이며, 다른 사람들과 무관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실재적으로 자유를 가질 수 없다. 외적인 권위로부터 자유롭고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자유의 개념 속에서 개인의 자유권이 인정될 수 있고 이를 법으로 제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자유는 이웃사랑을 고려할 때 의미가 있다.

23) 위의 책, 24-25.
24) 위의 책, 32.

www.kci.go.kr

"보라, 그러므로 믿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즐거움이 흘러나온다. 사랑으로부터 이웃을 대가 없이 섬기는 자유롭고, 기쁘고, 자발적인 삶이 흘러나온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이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것같이 그리고 우리의 넘침을 필요로 하는 것같이 우리 또한 어려움을 겪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가 없이 우리를 도운 것같이 우리도 역시 몸과 행동을 통해 오로지 이웃을 돕는 일을 해야 한다."[25]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은 그리스도인을 이웃으로 향하게 한다.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 자유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섬기도록 도와준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자유를 얻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섬기는 자유, 즉 봉사를 실행해야 한다. 봉사는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업적이다. 루터가 말하는 봉사라는 업적은 이기적인 측면을 벗어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업적이다. 믿음을 통해 얻은 자유인들은 다른 이웃들과 연대하면서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봉사의 길을 걷는다.[26]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 안에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웃들 안에서 산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이웃 안에서 산다. … … 보라 이것이 올바르고 영적인 기독교적 자유다. 이 자유는 모든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그리고 계명으로부터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모든 다른 자유를 넘어선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올바로 이해하고 유지하도록 하신다."[27]

성서와 루터를 통해서 살펴 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

25) 위의 책, 36.
26) 이런 해석으로 G. Brakelmann, *Zur Arbeit geboren?*, 35.
27) Martin Luther, "Von der Freiheit eines Christenmenschen," 37-38.

www.kci.go.kr

물로서 책임적 자유다. 이 자유는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웃을 섬기며 이웃에게 봉사하는 자유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책임적 자유가 요청된다.

IV. 디지털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전 세계적으로 수집된 빅데이터와 연결되어 인간의 삶에 실시간으로 개입하는 알고리즘의 혁신적 기술은 그 동안의 인간 경험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런 기술의 발전을 활용함에 따라서 자유의 장이 새롭게 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제한되기도 한다.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시대,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이상적 희망과 동시에 묵시적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시대에서 성서는 지식이 아닌 지혜를 가르친다. 창조론적 입장에서 인간들이 경작하고 만들어내는 모든 문화는 그렇게 좋지도, 그렇다고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 오히려 좋고 나쁨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문화의 형성과정에 관여하도록 허락한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인간들에게 부여한다.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생명체들에게 복을 준다. 이를 믿는 믿음은 성서의 증언 속에서 흘러나온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책임감을 가지고 현실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제할 것은 창조세계와 더불어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이 유지되는 것과 사회적 관계가 보다 인간적이고 정의로움을 품은 상태 속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28]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인간의 자유와 책임 속에서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활용하고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자유로서 그리

28) EKD, *Freiheit digital,* 234.

www.kci.go.kr

고 이 자유는 이웃사랑을 통해서 실현될 것으로 이해된다면,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디지털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해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서와 그리스도교적 전통에서 십계명은 이런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독일개신교협의회(EKD)는 그들이 발행한 백서(*Freiheit digital,* 2021)에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십계명을 통해서 설명한다.[29] 이 백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디지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자유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십계명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삶에서 자유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도 알려준다.

비록 십계명의 형성 시기와 오늘날의 시대적 격차가 클지라도 십계명은 인공과 자연 사이에서 서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울림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렇다고 십계명의 요구를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십계명의 상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십계명이 궁극 이전의 시간을 향한"[30]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디지털 시대에 고리타분한 십계명의 준행의 의무에 대한 언급이 아닌, 십계명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십계명을 통해서 디지털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책임적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의 정도를 고려하자는 말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디지털 세상에서 자유가 소실되지 않고 활용될 규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제1계명과 제2계명은 세상과 하나님, 마찬가지로 인간과 하나님의 근

29) 위의 책.

30) A., Rich, ***Wirtschaftsethik I, Grundlagen in theologischer Perspektive*** (Güterslor: Güterslorer Verlagshaus, 1987), 275. 리히는 성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절대화하는 것을 우려한다. 십계명에서 제4계명의 변환을 고려하면서 성서적 요구가 상황에 따라서 변경됨을 제시하고 성서적 요구를 상대적이라고 규정한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 270-280을 참조하라.

www.kci.go.kr

본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알고리즘으로 대표되는 디지털의 기술은 이른바 온라인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유를 부여한다. 이럴 때, 자칫 디지털 기술에 대한 신격화와 맹목적 수용으로 유사종교가 파생될 수 있다.[31] 제1과 2계명은 이와 거리를 두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적 자유를 권고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자유를 고려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누리고 이해하는 것이다.[32]

제3계명을 고려한다면, 개인의 믿음과 종교적 행위 또는 종교적 표상들은 온라인 세상에서 쉽게 제공받고 제공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선포 또한 공적인 공간을 넘어서 온라인의 공간에서 가능하다. 인터넷과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는 개인과 집단 그리고 공동체의 상호작용이 확장된 공간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공간에서 영적 경험을 공유하고 복음의 상호작용을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감시자의 위치에도 서야 한다.[33]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의 패턴이 유사해지는 경향으로 흘러간다. 단적인 예로, 코로나 팬데믹의 경험은 온라인을 통한 재택근무의 가능성을 확장시켰다. 노동과 쉼을 온라인 공간에서 찾아야 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의 문화의 소비는 전 세계적으로 유사성을 가진다.[34]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과 쉼에 대한 의미 부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4계명은 고려되어야 한다.[35]

"부모를 공경하라"의 제5계명은 세대 간의 이해로 해석될 수 있다. 기

31) 이에 대한 지적은 이미 자크 엘륄이 제시했다. 각주 1번 참조.

32) EKD, *Freiheit digital,* 235.

33) 위의 책, 236.

34) K-pop을 필두로 세계적 OTT 시스템 속에서 젊은 세대의 문화적 콘텐츠의 소비의 형태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35) EKD, *Freiheit digital,* 236.

www.kci.go.kr

성세대의 과제는 다음 세대가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는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돌봄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생산자원과 소비자원의 이동을 절감시킬 수 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시공을 초월한 노동을 통해서 자원이 절감될 수 있다. 어르신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할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 말벗이 없는 경우 인공지능이 친구가 되어준다. 그리스도인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세대 간의 격차를 줄여 공동체성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36]

제6계명을 철저히 숙고한다면,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평화를 지키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을 통한 자동화 시스템의 무기와 무인 감시 시스템은 인력을 최소화하고 인마 살상도 최소화할 수 있다. 범죄, 테러, 그리고 국가적 폭력을 최소화시키도록 전 세계가 서로 감시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악용하거나 오용하면 더 큰 위험이 작동하겠지만, 교회는 보다 정의로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제7계명은 그리스도인이 책임적 자유에서 이웃을 사랑하도록 요구한다. 온라인 데이트, 온라인 성매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통한 사회적 부작용과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온라인에서 책임적 자유를 실천시킬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37]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자신의 소유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그리고 보다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36) 위의 책, 237.
37) 위의 책.

www.kci.go.kr

데 이바지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디지털 세상에서 수집되는 빅데이터와 각종 디지털 공간, 예를 들어 클라우드와 와이파이 같은 것을 공유하면서 사회가 보다 공정한 방법으로 디지털 자원이 분배되도록 제8계명은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의 독점이 아니라, 공정한 분배를 창출할 문화적 인식과 사회적 인식을 그리스도인들은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 압력단체가 되어 고유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38] 최선의 방법은 이를 법윤리적 차원에서 연구하여 법제화하는 것이다.

공적인 공간에서 상호의 신뢰, 투명성 그리고 진실함을 위해서 제9계명이 필요하다. 디지털 공간에서 만들어진 미디어는 이런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미디어 속에서 개인, 공동체, 그리고 기구들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고 여기에서 공적인 담론의 형성이 가능하다. 공적 담론은 자칫 잘못하면 발생할 가짜 뉴스를 지양하고 이웃사랑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진실되게 일어나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 미디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39]

제10계명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자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개발하고, 사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등의 재화를 활용하고픈 욕구에서 작용되어야 한다.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나의 이해관계를 위해 도구화하거나 수단화로의 자유를 활용해서는 안 되며, 과도한 소비와 지나친 이해관계의 획득을 위해서 자유가 활용되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생동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적 유대를 위한 타인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40]

---

38) 위의 책, 238.
39) 위의 책.
40) 위의 책, 239.

www.kci.go.kr

디지털 시대에서 십계명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책임적 자유의 존재임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디지털 시대를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면서 이 곳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경험했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디지털 시대에 이웃을 사랑하는 긍정적인 방향성도 제시된 듯하다. 십계명을 상대적 준칙으로 이해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면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더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기독교에서 이해된 자유의 개념을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세상에로의 적용에 관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형태에서 법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정치적 압력단체로 성장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개신교가 가진 과제인 셈이다.[41]

V. 나가는 말

성서와 종교개혁 전통의 루터에게서 추론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책임적 자유다. 이는 이웃사랑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웃사랑의 책임적 자유가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통해 발전된 인공지능의 디지털 시대에 고려되고 통용되기 위해서 성서 특히 십계명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 요구된다. 하나님과 히브리 공동체 사이에 맺은 언약인 십계명을 준수함으로써 히브리 공동체가 참다운 자유를 얻었듯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십계명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자유를 얻는 통로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성서에 기록된 문자

41) 이에 대한 논의는 지면의 한계로 단순 제안으로만 제시한다.

www.kci.go.kr

적인 십계명의 준행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맞는 폭넓고 납득 가능한 십계명의 재해석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연장선으로 디지털 시대를 경작하는 책임적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디지털 시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의 악용과 오용을 최소화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자유를 누려야 할 것이다. 더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기독교에서 이해된 자유의 개념을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세상에로의 적용에 관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형태에서 법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정치적 압력단체로 활동하는 것이 제시될 수 있다.

www.kci.go.kr

참고문헌

고재식.『기독교윤리의 유형론적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김동환.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기독교사회윤리」44(2019), 55-76.

김항인.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정보 윤리 의식."「윤리연구」123(2018), 135-158.

이사야.『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언약, 새롭게 읽는 십계명』. 서울: 신앙과지성사, 2023.

이상용.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지도-원리, 구조, 내용."「경제규제와 법」13/2(2020), 129-159.

이중원. "빅데이터가 던지는 도전적인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고찰."「도시인문학연구」9/1(2017), 167-204.

이창호.『과학기술과 인간에 관한 기독교적 성찰』.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23.

장병열, 김영돈. "빅데이터 기반 융합 서비스 창출 주요 정책 및 시사점."「과학기술정책」192(2013)

Bedford-Strohm, H.. Sozialwissenschaftlichen Institut der EKD. Hg.. *Freiheit Reformation Heute*. Hannover: Agentur-Durkerei Verlag, 2016.

Brakelmann, G.. *Zur Arbeit geboren? Beiträge zu einer christlichen Arbeitsethik*. Bochum: SWI Verlag, 1988.

Domingos, Pedro. *The Master Algorithms*. 강형진 옮김.『마스터알고리즘』. 서울: 비즈니스북스, 2016.

EKD, *Freiheit digital, Die Zehn Gebote in Zeiten des digitalen Wandels*.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21.

Luther, M.. "Von der Freiheit eines Christenmenschen." *WA 7*, https://archive.org/details/werkekritischege07luthuoft 2023년 10월 13일 접속.

Rich, A.. *Wirtschaftsethik I, Grundlagen in theologischer Perspektive*. Güterslor: Güterslorer Verlagshaus, 1987.

Sandel, Michael J..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이창신 역.『정의란

www.kci.go.kr

무엇인가?』. 파주: 김영사, 2010.

Ulrich, Hans G.. “Freiheit.” in: Honecker, M. (Hg.). *Evangelisches Soziallexikon.* Suttgart: Kohlhammer, 2001. 505-511.

논문투고일: 2023년 11월 11일
심사개시일: 2023년 11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12일

www.kci.go.kr

• 국 문 초 록 •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의 발달은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켰다. 기존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런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기도 어렵게 만들었다. 자유의 경계도 모호하다. 디지털 기술은 자유를 확장시키기도 하지만, 억제할 수도 있다. 기독교윤리적 입장에서 자유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책임 속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독교의 시각에서 자유를 책임적으로 바라보는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디지털 기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서 다음 세대까지 지속가능한 삶이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이 필요하다. 성서의 증언과 루터의 신학은 자유를 이웃을 사랑하는 책임적 자유로 이해한다. 이 논문은 이웃사랑의 책임적 자유가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의 디지털 세상으로 대변되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고민한다. 특히 성서의 십계명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연장선으로 디지털 시대를 경작하는 책임적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중요하다.

주제어: 알고리즘, 빅데이터, 디지털 세상, 십계명, 그리스도인의 자유

www.kci.go.kr